

# 호남, No.3 HDPE 플랜트 3월 가동

## 3월 Blow 그레이드 집중생산 ... 가격하락 원인에 대한 의견 분분

2003년 10월3일 폭발사고로 가동을 중단했던 호남석유화학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제3라인이 2월15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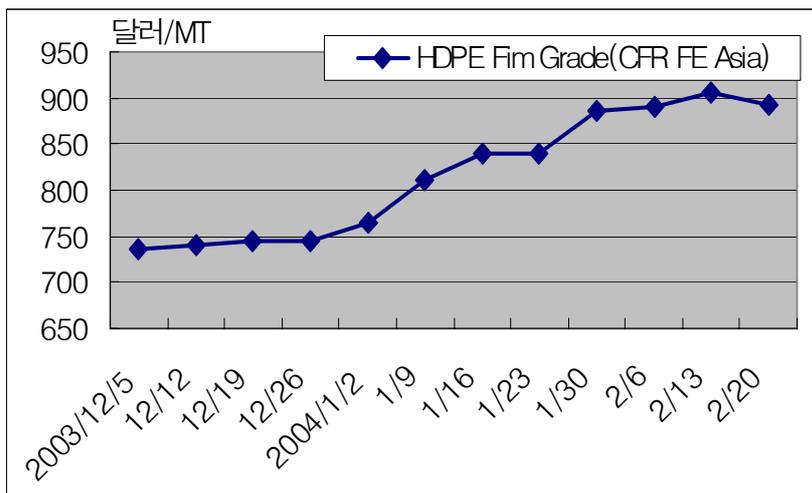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호남석유화학의 HDPE 제3라인은 이미 기계적으로 완전히 복구됐으며, 2월15일 시험가동에 들어가 3월 초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의 2003년 10월3일 폭발했던 HDPE No.3 플랜트는 생산능력이 16만톤으로 5개월여의 사고조사 과정과 복구과정을 거쳐 3월 초순 재가동을 준비중이다.

특히, 호남석유화학의 HDPE 폭발사고로 PE(Polyethylene)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발점으로 작용했는데, 최근 HDPE는 국제가격이 톤당 900달러가 넘는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HDPE No.3 플랜트 재가동으로 공급량이 현재보다 1만3000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HDPE 업계관계자들은 “최근 HDPE 재고량이 없는 상태로 호남석유화학의 HDPE 재가동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HDPE 가격추이



또 호남석유화학은 4월의 정기보수 일정으로 HDPE 정상가동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관계자는 “호남석유화학의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HDPE 농업용 필름은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3월 생산은 기존의 고객을 위해 사출과 타포린 그레이드의 생산을 줄이고 Blow 그레이드를 중심으로 생산해 4월 정기보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HDPE는 국제가격이 CFR FE Asia 톤당 900달러에서 800달러 후반대로 떨어졌는데, 생산기업들은 “중국 1월 가격하락을 주도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하락을 위한 Play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HDPE 국제가격 하락에 대해 가격마지노선이 900달러대이며, 중국 내수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HDPE 내수가격은 필름 그레이드가 2월 톤당 104-105만원에 거래됐으며, 사출 및 타포린 그레이드가 101-103만원에 거래됐다. <김동민 조사기자>